

K리그 '11m 롤렛' 페널티킥 성공률 79.2%

전남드래곤즈 가장 높은 성공률 86.2% 기록 노상래 통산 28번 시도 모두 득점 '백발백중' '거미손' 서울 GK 유상훈 PK 선방률 53.5%

축구에서 키퍼와 골키퍼의 '1대1 대결'인 페널티킥은 가장 손쉬운 득점 기회지만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983년 출범한 K리그 무대에서 역대 페널티킥 성공률은 79.2%로 높은 편이지만 실패율이 20.8%에 달할 정도로 'PK=득점' 공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키퍼와 골키퍼의 '11m 롤렛 싸움'인 페널티킥 기록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K리그는 1983년 출범 이후 총 1만6418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2109차례(경기당 0.128개)의 페널티킥 상황이 선연됐다. 페널티킥 성공 횟수는 1671회로 성공률이 79.2%다. 페널티킥 성공률이 가장 높은 구단은 123차례 시도에서 106회 성공(성공률 86.2%)을 기록한 전남 드래곤즈이다. 그 뒤를 수월 삼성(86.1%), 제주 유나이티드(84.4%)가 이었다. 반면 아산은 22개 페널티킥 시도

에서 14개만 득점으로 연결해 63.6%의 성공률로 K리그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다.

페널티킥을 많이 내준 순서는 제주(171회), 울산(166회), 부산(149회), 포항(146회) 등이었다.

전남과 대구FC에서 활약한 노상래는 페널티킥에서 '백발백중'의 정확성을 기록했다.

노상래는 통산 28차례 페널티킥을 시도해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다. 페널티킥을 20차례 이상 찬 선수 가운데 성공률 100%는 노상래가 유일하다. 그의 뒤를 김은중(27회 중 24회·88.9%), 데얀(24회 중 21회·87.5%), 우성용(30회 중 26회·86.7%) 등이었다.

페널티킥 키퍼들에게 좌절감을 안

겨준 '거미손 골키퍼'도 있다. 바로 FC서울의 유상훈이다. 그는 총 15차례 페널티킥 상황에서 8차례나 막아내 53.5%의 선방률을 과시했다.

유상훈은 2014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 승부차기에서 3연속 신들린 선방으로 서울의 승부차기 3-0 승리를 이끄는 맹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2013-2019년까지 페널티킥은 총 854회(전반 322회·후반 532회)가 나왔고, 핸드블에 따른 페널티킥 선언이 169회(19.8%)로 가장 많았다. 또 854회 페널티킥 가운데 657회가 성공했는데 이중 불의의 방향은 왼쪽 330차례, 오른쪽 236차례, 가운데 91차례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동백꽃 패치를 부착하고 자체 경기를 진행하는 제주유나이티드.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제주Utd, 도민의 아픔 함께 나누다

제주 4·3사건 홍보·추모도 동백꽃 달고 자체 연습경기 이창민 속한 A팀 2-1 승리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4·3사건 희생자의 상징인 동백꽃을 달고 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다.

제주는 올해로 제72주년을 맞는 4·3사건 알리기와 추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월 한 달간 유니폼 가슴 부위에 동백꽃 패치를 부착해 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전국적으로 알리겠다는 의도였다.

당초 공식 경기를 통해 동백꽃 유니폼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리그가 연기되며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는 고심 끝에 연습경기에 착용해 사진과 영상으로 팬들에게 선보이기로 했다.

5일 자체 연습경기를 위해 선수들이 먼저 운동장에 나와 몸을 풀었다. 남기일 감독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가슴엔 동백꽃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이후 선수들이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하나, 둘 동백꽃 패치를 스스로 가슴팍에 부착했다. 코칭스태프 역시

자발적으로 동백꽃 패치를 부착하며 추모의 뜻에 동참했다.

팀의 주장 이창민은 "제주에서 4월에 피는 동백꽃의 의미를 알고 있다. 4·3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 복무를 제외하고 제주 생활 5년 차를 맞은 안현범 역시 "동백꽃을 달고 뛰니 조금 더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희생자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백꽃 패치를 달고 진행된 연습 경기에선 이창민이 속한 A팀이 2-1 승리를 거뒀다. 이창민을 비롯해 안현범, 주민규, 아길라르가 중심인 A팀에 속했고, 윤보상, 정우재, 공민현, 임찬율이 B팀으로 맞섰다.

경기 초반 B팀의 실책을 틈타 주민규가 침착하게 상대 골망을 가르며 선제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반 막판 이규혁의 코너킥을 임택근이 먼저 운동장에 나와 몸을 풀었다. 마무리하며 균형을 맞췄다.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경기는 후반 막판 승부가 갈렸다. A팀 아길라르가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터뜨리며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10년 넘게 끝없는 논쟁 메시·호날두 중 최고는?

'리오넬 메시(33·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 중 누가 최고의 축구선수인가?'

축구계에서 10년 넘게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물음에 대해 은퇴한 브라질 축구스타 카카(38)와 팬들이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놨다.

카카는 4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메시의 손을 들어줬다.

2009-2013년까지 호날두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한솥밥을 먹은 카카가 메시를 선택한 건 의외다.

카카는 "나는 메시가 낫다고 본다"면서 "그의 플레이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두 선수와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말했다.

카카가 오랜만에 이른바 '메호대전' (메시와 호날두 중 누가 최고인지를 가리는 인터넷 논쟁)의 포문을 열자 스포츠 매체 '기브미스포츠'가 설문조사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 매체는 무려 30만7000명을 대상으로 메시와 호날두 중 누가 최고의 선수인지를 묻는 온라인 설문을 했다.

기브미스포츠는 5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51%-49%로 호날두의 근소한 우세였다. 메시-호날두 시대가 열리기 직전 최정상에 섰던 카카와 팬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메호대전'의 승부는 이번에도 갈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아이쿠 내 머리" 5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자재 홈백전에서 백팀 4번 타자 나지완이 7회 말 1사 때 홈팀 박준표의 투구에 맞고 있다. 나지완은 대주자로 교체됐고, 헤드샷을 던진 박준표는 더그아웃 요정으로 심판은 퇴장 조치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주경마공원 오는 23일까지 휴장 연장

한국마사회 4번째 기간 연장 상생자금 200억 무이자 대여

한국마사회는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 3개 경마장과 사업장에 대한 임시 운영 중단 조치를 이달 23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지

난 2월 23일부터 긴급 휴장에 들어간 이후 4번째 추가 연장이다.

한국마사회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경마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예상되는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 부서의 예산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

에 어려움을 겪는 경마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상생자금을 조성해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경마 종사자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경마재계에 대비해 전국 사업장에서 방역을 지속하고 경마 시설을 점검하는 등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신진서 4개월 연속 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4개월 연속 바둑랭킹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4월 랭킹에서 1만119점을 기록, 2위인 박정환(9962점) 9단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달렸다.

3월 초순까지 파죽의 28연승을 달리던 신진서는 KB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과 맥심커피배에서 신민준 9단에 잇따라 패하긴 했으나 지난 한 달 5승 2패로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2위 박정환은 3월에 3승 1패를 기록했다. 3위는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신진서를 꺾고 팀에 우승을 안긴 신민준이 차지했다.

변상일 9단이 2개월 연속 4위를 지켰고, 김지석 9단과 이동훈 9단은 5위와 6위를 자리바꿈했다. 연합뉴스

| KBS1 | KBS2 | MBC | JIBS/SBS | EBS1 |
|--|---|--|--|---|
|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론 초청 제1차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50 생활속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우한리풀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살피하는 남자들(재) |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람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5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푸르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 7:30 뽀뽀뽀 뽀로로 8:00 땀방울 유치원 9:30 페파 피코 9:40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 합니다 14:40 마사와 곰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0 꼬마버스 타요 16:10 피시 17:00 EBS 뉴스 19:00 형사 가제트 19:45 지아인트 펑TV |
|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킹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3:5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토론회-제주시울 15:15 영상앨범 산(재) 15:45 아남여정 플러스(재) 15:55 송더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동물의 왕국 | 12:10 제보자들(재) 13: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5:10 자동공부채상 위기 2 15:30 TV 유치원 16:00 우한리풀 샐러드(재) 17:00 대화의 회담 스페셜 | 12:00 12 MBC 뉴스 12:20 호기심대장 키토 12:50 뽀뽀뽀 뽀로로 스페셜 13:20 헬로킴즈 신비한 자연교실 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다류에세이 그사람 스페셜 16:20 365 온명을 거스르는 1년(재) 17:00 5 MBC 뉴스 17:30 테마여행 길 스페셜 |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릭! NOW 제주(재) 17:00 SBS 온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순간포화 세상엔 이런일이(재) |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철의 뉴스쇼 12:00 CBS낮중음악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저널 전문방송입니다 21:35 라디오강연 22:05 채선아의 가스펠 아워 |
|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3:00 더 라이브 23:4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위험한 약속 20:30 글로벌24 20:50 옥탑방의 문제아들 1부 21:25 옥탑방의 문제아들 2부 22:00 계약우정 22:35 계약우정 23:10 개는 훌륭하다 1부 24:05 개는 훌륭하다 2부 | 18:30 생방송 오늘 저녁 19:35 MBC 뉴스데스크 20:55 365 온명을 거스르는 1년 21:30 365 온명을 거스르는 1년 22:05 스토리이트 23:05 리얼엔터테인먼트 지는거다 | 18:50 제21대 총선방송연설 정의당 18:55 네오세모 19:5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1:40 아무도 모른다 22:20 아무도 모른다 23: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3:4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2부 | KCTV 07:00 KCTV 뉴스 8:30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9:30 KCTV 디류스페셜 10:30 4.15총선 후보자 대담 11:00 KCTV 뉴스 13:10 KCTV 특집 디류 14:00 취미로 먹고 산다 17:00 KCTV 뉴스 18:00 취미로 먹고 산다 19:00 KCTV 뉴스 7 21:00 KCTV 뉴스 7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6일

김홍상 지단(호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사소한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니 조심. 48년 동로나 동업자, 거래처의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각별한 주의 요망. 60년 사소한 시비가 구설수가 되니 음주나 차량운전은 삼가고, 조기 귀가가 좋다. 72년 달콤함이 있는 말에 현혹되기 쉬우니 잘 참아야 한다. 84년 애인에게 히든카드를 보이지 마라.

42년 갈 곳 없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출할 것. 54년 주변에 나를 알려면 대인관계를 지속하라. 66년 솔직하고 화근함을 좋아해도 상대방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니 비판하지 마라. 78년 집안에 옛사람 일이 격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로 헤드리라. 90년 친구나 이웃과 모임이 생기면 참석하라.

37년 낙상이나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조심. 49년 재물손실이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경영업체 등장. 61년 사업이나 진로개발 등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73년 약속이 중첩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선약에 충실하라. 85년 기조가 틀렸어야 하니 매사를 꾸준하게 다져 나가는 습관이 필요.

43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려라. 풀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55년 직장에서의 기쁜 일이 있거나, 관공계약이 있다. 67년 이성교제나 새로운 이성분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고 갈등.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대적이 있고 아이디어가 세뻐다. 91년 의욕이 증가해 무슨 일든 하고 싶어한다.

38년 든든한 내 자식의 자랑도 남이 해야 더욱 빛난다. 50년 치밀하고 꼼꼼하며 정확한 인물이다. 62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자녀나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고생이 있는 날. 74년 차량으로 인해 고생을 하니 운전 조심. 86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44년 좋은 일 속에 흉이 도사리니 밀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56년 명예나 인간관계 체체술이 뛰어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68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을 인정받는다. 80년 시합-공부는 좋으나 직장인은 갈등 고민. 92년 관청에 할 일이 있어 외출을 하거나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39년 친인척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격정스런 소식을 접한다. 51년 웃어른 일로 자금이 지출되거나 손재수가 있다. 63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승진. 75년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너무 들뜨면 구설이나 시달림이 마음을 편하게 하라. 87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추진되고 기쁨도 있다.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게.

45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히려 귀는 늦지만다. 57년 집안에 근심이 오히려 안부전화 필요. 부부간 시합, 처가문제도 논쟁한다. 69년 자녀 일로 고민하거나 상의할 일이 생긴다. 81년 가정불화, 애정관계 문제있으니 이해하고 배려 필요. 93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게 좋다.

40년 이웃과 나눔을 갖거나 먹을 복이 있다. 52년 경력과 노하우로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증가시킨다. 64년 부부간에 다툼이 커지니 즉시 화해할 것. 76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굵고 시기가 생겼다가도 없어진다. 88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외출이 기다리고 있다.

46년 자녀에 혼담이 오거나 상견례가 오갈 수 있다. 58년 책임분야 능력을 인정받고 순조롭다. 다만 자녀로 인해 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0년 소개 또는 중매를 받아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호기심이 발동하고 구매의욕이 커진다. 94년 의욕이 상승하나 계획추진에 지연되는 모습으로 심사숙고 필요.

41년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 53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65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요망. 77년 집안에 격정이나 근심이 있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취하라. 89년 약속이 늘어나고 계획이 많으나 자질이 생긴다.

47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때론 필요하다. 59년 자신 일보다 자녀로 인한 마음으로 전전긍긍. 71년 맛을 내고 외출하려 한다. 이성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83년 취업 등 직장 내 업무로 바쁘고 분주하다. 95년 힘이 들어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진다. 변통하는 것은 신중.